

## 2020 제주민중대회 정화빈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도시 실천선언,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기후위기 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회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OECD 국가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 4위, 탄소배출증가량 1위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소배출량을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50 탄소중립 목표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위기를 눈가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했지만, 지금의 제주는 탄소 없는 섬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자유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라는 허울 좋은 선언을 앞세우고, 뒤로는 그와 정반대의 정책과 개발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1인당 자동차 보유수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탄소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위한 정책 마련 없이 무조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비자림로 인근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교육,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고 학생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인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을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비롯하여 제주 곳곳에서 대형 난개발 사업들의 폭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후위기로 인한 강력한 태풍이 수차례 제주를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농민과 가장 취약한 거주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제주는 해수면상승의 영향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 곳자왈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 서식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바다와 땅, 서식생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부동산 투기업자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다양한 비인간 동물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불평등구조는 기후위기라는 조건에서 더 강력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전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강화한 이 시스템에 종말을 고하고, 급격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으로, 생산중심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환정책이 필요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들의 시험지로 제주를 몰아넣으려 합니다. 신사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제주의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정은 당장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제2공항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는 뉴딜정책은 전사회적인 합의와 참여를 통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부추기는 제2공항 철회하라!